

金富軾의 北宋使行과 『奉使語錄』

鄭堦謨*

I. 머리말	陪臣表·狀
II. 김부식의 북송사행 시기 및 역할	IV. 金富軾『奉使語錄』一卷
III. 『東人之文·四六』 수록 김부식의	V. 맺음말

• 국문초록

김부식은 隨行員, 書狀官, 正使의 직함으로 3차에 걸쳐 북송에 사행했다. 그중 예종 11년(1116)에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한 제2차 사행에서 지은 表·狀 30여 편이 『東人之文四六』에 수록되어 현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절단의 사행 노정 및 북송 汴京에서의 활동 등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宋史·藝文志』에는 ‘金富軾『奉使語錄』一卷’이 저록되어 있으나 일찍이 실전되었다. 본고에서는 김부식의 『봉사어록』을 그가 서장관으로 참여한 제2차 북송사행 때 작성한 사행보고 서임을 논증했다. 그리고 崔瀼가 『동인지문사록』을 편찬하면서 『봉사어록』에 수록된 表·狀을 그대로 전채하면서 김부식의 북송사행 관련 자료가 현존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부식의 『奉使語錄』은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행록이며, 『동인지문사록』에 재수록되어 전하는 이들 表·狀은 고려사절단의 노정과 북송에서의 제반 활동, 그리고 당시 여·송관계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이다.

주제어 : 김부식, 북송사행, 『奉使語錄』, 『東人之文四六』, 『宋史·藝文志』

* 南京大學 外國語學院 부교수

I. 머리말

金富軾(1075~1151)은 仁宗 13년(1135)에 일어난 妙淸의 난을 진압하고, 인종 23년(1145)에는 『三國史記』를 편찬하여 진상하는 등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학 및 문화사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업적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김부식과 『삼국사기』에 관한 연구 논문은 수 백 편에 이르고, 전문 연구서만도 수 십 권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학계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김부식의 묘청의 난 진압과 『삼국사기』 편찬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성과는 모두 인종(1122~1146)의 명을 받들어 행한 것으로, 이는 그가 당시 권력의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 학문적으로도 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김부식은 어떻게 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권력의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그의 문학적 재능과 함께 대중국 외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부식은 22세인 肅宗 원년(1096)에 과거에 급제하고 일찍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문한을 담당하는 한림원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많은 대중국 외교 문서를 작성했으며, 또한 3차례 北宋(960~1126)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¹⁾ 특히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仁宗 4년(靖康 원년, 1126) 9월에 樞密院副使 김부식이 정사로 선발되어 사절단을 이끌고 북송에 사행하고 있는데,²⁾ 이는 당시 고려 조정에서의 그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그의 대중국 외교 능력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행에서 김부식은 북송의 멸망을 목도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이후로 격변하는 중원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중국 외교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한편 김부식은 세 번의 북송사행 도중 적지 않은 사행 기록을 남겼는데 현재 그의 表·狀 30여 편이 『東人之文四六』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³⁾ 또한 『宋史·藝文志』

1) 『三國史記』 권33, 「雜志·色服」,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與宋人無異.”

2) 『高麗史』 권15, 「仁宗世家」, “(仁宗四年)九月乙丑, 遣樞密院副使金富軾·刑部侍郎李周衍如宋, 賀登極.”

3) 崔瀞 編, 『東人之文四六』, 『高麗名賢集』 5책 수록,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에는 ‘金富軾『奉使語錄』一卷’⁴⁾이 저록된 것으로 보아 북송사행을 마치고 사행보고서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여·송교류 및 북송사행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김부식의 북송사행 및 그의 사행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⁵⁾ 다행히 최근 『東人之文四六』에 수록되어 전하는 북송사행 관련 陪臣表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 있지만,⁶⁾ 아직 『봉사어록』의 존재를 포함한 김부식의 북송사행 전반에 대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김부식의 북송사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김부식의 북송사행 시기 및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어서 그가 서장관으로 참여한 제2차 사행 도중에 지은 각종 表·狀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사·예문지』에 저록된 김부식의 『봉사어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4) 『宋史·藝文志』 권203, 「史部·傳記類」. 다만 김부식의 『봉사어록』은 이른 시기에 실전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5) 여·송 관계 및 북송사행에 대해서는 丸龜金作,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 (一)·(二)」, 『朝鮮學報』 17·18, 1960·1961; 全海宗, 「麗宋關係」, 『東洋學』 7, 檀國大學, 1977; 奧村周司,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十一・二世紀における對中關係の一面」, 『史觀』 110, 1984; 徐連達, 「10世紀中葉到11世紀初北宋與高麗王朝의 友好關係」, 復旦大學『韓國研究論叢』 1, 上海人民出版社, 1995; 金成奎, 「入宋高麗國使의 朝貢儀禮와 그 주변」, 『全北史學』 24, 2001 등이 있다. 그리고 고려사절단의 북송사행 목적과 사절단원의 선발에 대해서는 朴龍雲, 「高麗·宋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한국학보』 21·22, 1995·1996이 참조된다. 이 밖에도 북송사행에 관련된 논의로는 鄭堦謨, 「北宋使行을 통해서 본 朴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韓國漢文學研究』 46, 한국한문학연구회, 2010; 李錫炫, 「北宋代使行旅程行路考-宋入境以後를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114, 2011; 鄭堦謨, 「北宋後期 高麗使節團의 北宋使行 路程考-成尋의 『參天台伍臺山記』를 바탕으로」, 『대동문화연구』 99, 2017; 鄭堦謨, 「李子淵의 北宋使行考-『破閑集』 수록 甘露寺 시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6, 2019 등이 참조된다. 한편 여·송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姜吉仲, 『高麗與宋金外交經貿關係史論』, 文津出版社有限公司, 2004; 李鎮漢,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景仁文化社, 2011; 王霞, 『宋朝與高麗往來人員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8 등이 있다.
- 6) 朴漢男은 「14세기 최해의 『동인지문사육』 편찬과 그 의미」(『대동문화연구』 32, 1997)에서 『東人之文四六』 권9에 수록된 陪臣表狀의 내용을 정리 소개하면서 김부식이 서장관으로 참여한 睿宗 11년(1116)의 북송사행에서 남긴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의 사절단의 노정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 다소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편 豊島悠果는 「——一六年入宋高麗使節の體驗: 外交・文化交流の現場」(『朝鮮學報』 210, 2009)에서 睿宗 11년(1116)의 북송사행에서 서장관으로 참여한 김부식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朴漢男의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고려사절단의 汴京에서의 활동 및 당시 여·송교류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조명하고 있어 이 분야 연구에 큰 참조가 된다.

II. 김부식의 북송사행 시기 및 역할

唐(618~907)이 멸망한 이후 중원은 먼저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지역에는 거란의 遼(907~1125)가 들어서고, 중원지역에서는 반세기 동안에 5대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를 거친다. 이때 한반도를 재통일한 고려의 대중 외교정책 또한 중원에서 수시로 흥망성쇠하는 왕조에 따라 다변한다. 고려는 北宋이 들어서자 光宗 13년(962)에 李興祐·李勵希 사절단의 파견을 시작으로 북송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한다. 거란의 침략에 맞서 북송과 고려는 한때 연합전선을 도모하고자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결국 거란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그리고 1004년에 거란과 북송 사이에 ‘澶淵之盟’이 성립되자 삼국 사이에는 복잡·미묘한 외교관계가 형성되면서 고려와 북송과의 외교관계도 점차 소원해진다. 이후 고려는 계속되는 거란의 침략을 모면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북송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요청하지만 모두 거절당하면서 顯宗 21년(1030)에 파견한 元穎 사절단의 파견을 마지막으로 양국의 공식적인 사신왕래가 단절된다. 이 시기 70여 년 동안에 고려는 북송에 24회의 공식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경제적·문화적 교류보다는 정치적·군사적인 목적에서의 사행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11세기 중엽 이후로 거란의 세력이 점점 약해진 반면 북송은 산업경제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이때 즉위한 북송의 神宗(1067~1085)은 太祖 이래로 염원이었던 華北의 燕·雲지역을 회복하고자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펼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王安石(1021~1086) 등을 등용하여 ‘新法’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거란의 후방에 위치한 고려와의 군사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북송의 신법당정권은 ‘聯麗對遼策’의 일환으로 고려와의 국교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려는 북송의 요구에 부응해 文宗 25년(熙寧 4년, 1071)에 民官侍郎 金梯를 비롯한 11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양국은 국교를 재개한다. 이후로 고려는 2~3년에 한차례씩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북송 멸망 직전인 仁宗 4년(靖康 원년, 1126)에 樞密院副使 金富軾을 비롯한 292명으로 구성된 사절단까지 56년 동안 총 23회의 공식적인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 시기 고려는 정치적·군사적인 목적 보다는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위해 북송에 적극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⁷⁾

당시 고려에서 북송에 파견하는 사절단원은 正使와 副使, 그리고 三節(上·中·下節)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백여 명의 인원이 파견되고 있다. 하지만 전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는 많은 병사를 동반하게 되므로 인종 4년(1126) 김부식 일행의 사행에서처럼 거의 3백 명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사절단은 정·부사와 함께 사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上節이 핵심 사행원인데, 상절은 書狀官을 비롯하여 都轄, 提轄, 醫官, 巡檢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특히 정사와 부사, 그리고 서장관은 대중국 외교의 일선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중국 전문가나 당대 최고의 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進士과 출신으로 장기간 문한직에 종사하면서 이미 거란이나 북송에 사행한 경험이 있는 관원들 중에서 선발되었다.⁸⁾ 일반적으로는 먼저 북송사행에 서장관 등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쌓은 뒤 다시 10여년 후에 정·부사가 되어 고려사절단을 이끌고 북송을 재방문하며, 북송에서 사절단을 파견해오면 이들 북송사행 경험자 중에서 接伴 및 館伴使를 선출하여 북송 사신들을 접대하도록 하는 등 대중국 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다.

김부식은 『三國史記』의 論贊부분에서 자신의 북송사행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이 세 번 上國에 사신을 다녀왔는데[臣三奉使上國], 일행의 의관이 송나라 사람과 더불어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조회에 들어가다가 너무 일찍 도착하여 紫宸殿 문 앞에 서 있었는데 閤門員 한 명이 와서 묻기를 “어떤 사람이 고려인 使者인가”라 하여 “접니다”라고 하니 웃으면서 갔습니다.⁹⁾

여기서 김부식은 “신이 세 번 上國에 사신을 다녀왔는데[臣三奉使上國]”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의관 및 복식제도가 송나라와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북송사행에서의 구체적인 체험을 소개하고 있다. 김부식이 세 번 송나라에 사행했다고

7) 朴龍雲, 「高麗·宋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한국학보』 21·22, 1995·1996 참조.

8) 이 시기 북송에 파견된 23차례 사절단의 핵심 구성원들을 보면 이미 거란에 파견된 뒤 몇 년 후에 다시 북송에 파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관직이 한두 등급 상승한 단계에서 북송에 파견된다.

9) 『三國史記』 권33, 「雜志·色服」,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與宋人無異. 嘗入朝尚早, 立紫宸殿門, 一閤門員來問, “何者是高麗人使”, 應曰, “我是”, 則笑而去.”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인종 4년(1126)에 정사로 참여한 북송사행에 앞서 이미 두 차례 더 북송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또 다른 논란부분에서 자신이 서장관으로 북송에 사행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논하기를, …… 政和연간에 우리 조정에서 尙書 李資諒을 송에 보내 조공했을 때, 신이 文翰의 임무를 띠고 보좌했는데, 佑神館에 이르러 한 집에 선녀 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¹⁰⁾

여기서 김부식은 자신이 政和 연간(1111~1117)에 李資諒의 ‘文翰之任’ 곧 서장관으로 북송에 사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사』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睿宗 10년(1115)에 북송에 파견된 王字之·文公美 사절단이 다음 해(1116) 6월에 귀국하면서 북송에서 大晟樂을 받아오게 되는데,¹¹⁾ 고려는 이에 대한 사례를 목적으로 같은 해 7월에 李資諒·李永 등을 북송에 파견한 사실이 확인된다.¹²⁾ 그리고 이때 김부식은 李資諒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행 도중 많은 사행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처럼 김부식은 세 번 북송에 사행한 바 있다고 하는데, 그중 예종 11년(1116)에 서장관으로 북송에 파견되었으며, 10년 후인 인종 4년(1126)에는 정사로 고려사절단을 이끌고 다시 북송에 사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김부식의 또 한 번의 북송사행은 언제였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시기는 서장관으로 파견되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식은 22세인 肅宗 원년(1096)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어 安西大都護府의 司錄 叅軍事에 임명되었으며, 임기를 마치자 문관을 담당하는 한림원에 直翰林院으로 배속되었으며, 예종연간(1106~1122)에도 계속 한림원에서 근무하면서 右司諫知制誥를 거쳐 起居注(1121년)와 中書舍人(1122년)을 역임하게 된다.¹³⁾ 김부식이 42세 때

10)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敬順王」, “論曰, …… 政和中, 我朝遣尙書李資諒, 入宋朝貢,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11) 『高麗史』 권14, 「睿宗世家」, “(睿宗十一年, 六月)乙丑, 王字之·文公美貢詔, 還自宋, 王受詔于乾德殿. …… 又詔賜大晟樂.”

12) 『高麗史』 권14, 「睿宗世家」, “(睿宗十一年, 秋七月)己酉, 遣李資諒李永如宋, 謝賜大晟樂.”

인 예종 11년(1116)에 上節의 서장관으로 선발되어 북송사행에 참여한 것은 그가 한림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김부식의 1차 북송사행 또한 한림원에 재직하고 있던 때로 추정되며, 직한림원에 배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중국 외교의 경험을 쌓기 위해 上節 또는 中·下節의 수행원으로 선발되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은 安稷崇(1066~1135)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직송은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주가 있어 國子監試에 합격했다. 그리고 肅宗 3년(1098)에 尹瓘·趙珪 사절단을 북송에 파견할 때¹⁴⁾ 명사를 선발하여 下節로 충원하라는 명이 있었으며, 이때 그가 선발되어 수행원으로 북송사행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⁵⁾ 한편 안직송은 15년 뒤인 예종 8년(1113)에 다시 西頭供奉官(종7품)으로 북송에 사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持牒使의 역할로 북송의 明州(현 浙江省寧波市)에 가서 예종이 母喪으로 그해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전하게 된다.¹⁶⁾ 이처럼 안직송은 먼저 下節로 북송사행에 참여한 뒤 15년 후에 다시 持牒使로 북송에 다녀오고 있다. 안직송의 예를 참조하면 일찍 과거에 합격하고 문학적 재주가 있어 直翰林院에 배속되었던 김부식 또한 대중국 외교의 경험을 쌓기 위해 上節 또는 中·下節의 수행원으로 선발되어 북송사행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부식 가계는 이 시기 대중국 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먼저 그의 부친 金觀이 문종 34년(1080)의 柳洪·朴寅亮의 사행에 동참하여 문명을 떨치게 된 것을 시작으로,¹⁷⁾ 김부식의 형제들 또한 북송사행원의 주요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먼저 김부식의 둘째형인 金富佺(1071~1132)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매진하여

13) 『高麗史』 권98, 「金富軾列傳」, “金富軾, 富佺之弟. 肅宗時登第, 補安西大都護府司錄參軍事, 考滿, 直翰林院, 歷右司諫·中書舍人.”

14) 『高麗史』 권11, 「肅宗世家」, “(肅宗三年), 七月己未, 遣尹瓘·趙珪如宋, 告嗣位, 進方物.”

15) 金龍善 편, 『高麗墓誌銘集成』(第五版), 「朝議大夫工部尙書三司使致仕安公墓誌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59면, “公諱稷崇, …… 公性溫雅寬厚, 少好學文, 中南宮選. 肅宗卽政三年, 上命中書舍人尹瓘等, 使人入宋, 詔選名士, 以補下節, 公被舉隨行.”

16) 『高麗史』 권13, 「睿宗世家」, “(睿宗八年, 九月)乙酉, 遣西頭供奉官安稷崇如宋, 牒宋明州云, “去年入朝金緣等回稱, ‘在闕下時, 蒙館伴張內翰等諭, 來歲又當禋祀, 申覆國王, 遣使入朝, 以觀大禮.’ 聞此, 已令有司, 方始備辦, 忽母氏薨逝, 迫以難憂, 今年未遑遣使入朝, 以達情禮, 請炤會施行.”

17) 『高麗史』 권95, 「朴寅亮列傳」, “寅亮 …… 轉禮部侍郎, (文宗)三十四年, 與戶部尙書柳洪, 奉使如宋. …… 有金觀者, 亦在是行. 宋人見寅亮及觀所著尺牘·表狀·題詠, 稱嘆不置, 至刊二人詩文, 號小華集.”

宣宗 9년(1092)에 과거에 급제하고 문한을 담당하는 直翰林院이 되어 한림원에 재직했다. 김부일은 숙종 5년(1100)에 王蝦·吳延寵 일행의 서장관으로 북송사행에 참여했는데, 이때 정사를 대신해서 지은 표문들이 훌륭하여 북송의 徽宗(1100~1125)으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¹⁸⁾ 그리고 동생 金富儀(金富轍, 1079~1136)는 숙종 2년(1097)에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直翰林院이 되었으며,¹⁹⁾ 예종 6년(1111)의 金緣·林有文 일행의 서장관으로 북송사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乞赴壁雍觀講表」를 지어 역시 휘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²⁰⁾ 그리고 김부의는 13년 뒤인 仁宗 2년(1124)에는 부사가 되어 정사 李資德과 함께 고려사절단을 이끌고 북송에 사행하고 있다.²¹⁾

이처럼 김부일, 김부식, 김부의 3형제는 사절단의 핵심성원인 서장관, 부사, 정사로 이 시기 북송사행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한림원에 재직하면서 서장관으로 선발되어 북송사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모두 뛰어난 문장으로 북송 황제에게 칭찬을 받는 등 문한 담당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 그런데 김부식은 김부일보다 16년 늦게, 그리고 동생인 김부의보다도 5년이나 늦은 예종 11년(1116)에야 서장관으로 선발되어 북송에 파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시기 북송은 동북쪽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여진의 金(1115~1234)과 연결하여 세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요나라를 공략하여 燕·雲 16주를 회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요나라의 후방에 위치한 고려에게도 군사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면서 고려의 지위를 ‘國信使’로 대우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또한 태학에 고려의 유학생을 받아들여 교육하는 한편 새롭게 제정한 大晟樂을 비롯한 각종 악기

18) 『高麗史』 권97, 「金富份·富儀列傳」, “富份, 少力學登第直翰林院, 隨樞密院使王蝦入宋, 爲蝦作表辭雅麗, 帝再遣內臣獎諭.”

19) 『高麗史』 권97, 「金富份·富儀列傳」, “富儀, 初名富轍, 字子由. 肅宗二年登第. 舊制, 三子登科, 歲廩母三十石. 富儀兄三人, 並先登科, 至是, 制加一十石, 遂以爲常. 在職廉謹, 累遷直翰林院. 睿宗六年, 以書狀從樞密院副使金緣如宋, 上表乞赴壁雍觀講. 帝答詔有“觀觀重席, 往詣橫經, 誠惓備陳, 文辭兼麗.”之語. 還拜監察御史.”

20) 『高麗史節要』 권7, “(睿宗六年), 秋七月, 遣樞密院副使金緣少府監林有文如宋. 書狀官直翰林院金富轍上表, 乞赴壁雍觀講. 帝答詔, 有觀觀重席往詣橫經誠惓備陳文詞兼麗之語. 使還, 擢富轍監察御史.”

21) 『高麗史』 권15, 「仁宗世家」, “(仁宗二年, 七月)戊子, 遣樞密院副使李資德, 御史中丞金富轍, 如宋謝恩, 獻方物.”

와 악보 등을 보내왔다. 한편 요나라는 여진의 공격을 받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빈번하게 고려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고려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발맞춰 요나라의 연호 사용도 폐지하게 된다.²²⁾ 그리고 북송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북송에 파견하는 사절단원 구성에도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 문서를 담당하는 서장관으로는 문장실력뿐만 아니라 북송사행 경험도 있는 등 보다 경륜을 갖춘 김부식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부식의 1차 북송사행은 예종 11년(1116)에 서장관으로 파견되기 이전, 그리고 직한림원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대북송 외교의 경험을 쌓기 위해 上節 또는 中·下節의 수행원으로 선발되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김부식의 형 김부일이 서장관으로 북송사행에 참여한 숙종 5년(1100)부터 동생 김부의가 서장관으로 참가한 예종 6년(1111) 이전에 사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김부식은 수행원, 서장관, 정사의 직함으로 3차에 걸쳐 북송에 사행했다. 김부식의 1차 북송사행은 그가 과거에 급제한 이후 直翰林院으로 재직하던 숙종 5년(1100)부터 예종 6년(1111) 사이에 上節 또는 中·下節의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부식의 2차 북송사행은 예종 11년(1116)에 고려가 ‘國信使’로 격상되면서 북송에서 보내온 大晟樂에 대한 사례를 목적으로 파견되는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했다. 이때 김부식은 이자량을 대신해서 북송 조정에 15편의 表文을 지어 올렸으며, 상경 및 귀국시에 경유하는 각 州·府에 보낸 狀啓 17편도 작성했다. 그리고 인종 원년(宣和 5년, 1123)에 북송에서 路允迪 일행의 사절단을 파견해 왔는데 이때 김부식은 북송의 사절단을 접대하는 同接伴使가 되어 북송 사절단을 접대하면서 徐兢(1091~1152)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도 이름을 올려 다시 한 번 중국에 문명을 알리게 되었다.²³⁾

한편 김부식의 3차 북송사행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인종 4년(1126)에 정사로 참여했다.²⁴⁾ 이해 고려조정에서는 전횡을 일삼던 李資謙이 축출

22) 『高麗史』 권14, 「睿宗世家」, “(睿宗十一年, 四月)辛未, 中書門下奏, ‘遼爲女眞所侵, 有危亡之勢, 所稟正朔, 不可行. 自今, 公私文字, 宜除去天慶年號, 但用甲子.’ 從之.”

23) 徐兢 撰, 『宣和奉使高麗圖經』 권8, 「人物·同接伴通奉大夫尚書禮部侍郎上護軍賜紫金魚袋金富軾」, 亞細亞文化社, 1972, 45면, “金氏, 世爲高麗大族, 自前史已載. 其與朴氏, 族望相埒, 故其子孫多以文學進. 富軾, 豐貌碩體, 面黑目露. 然博學強識, 善屬文, 知古今, 爲其學士所信服, 無能出其右者. 其弟富轍, 亦有詩譽. 嘗密訪其兄弟命名之意, 蓋有所慕云.”

되었으며, 금나라가 집요하게 君臣의 관계를 강요해 오자 이에 굴복하여 금에 事大의 예를 행하게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크나큰 정변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북송조정에서는 금의 남침으로 위기를 느낀 휘종의 갑작스런 선양으로 欽宗(1126~1127)이 등극하면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즉위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고려는 김부식 등 292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흠종의 등극을 하례하는 한편 금과 북송의 대치상황 등 대륙의 동정을 살피면서 북송의 군사적 요청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하지만 김부식 일행이 明州(현 浙江省寧波市)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汴京이 금에 함락되면서 고려사절단은 명주에서 발이 묶이게 되고, 이곳에서 5개월을 머무르다가 귀국하게 된다.²⁵⁾

이처럼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에 김부식이 북송에 파견되는 마지막 사절단의 정사로 선발된 것은 당시 고려 조정에서의 김부식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그의 대중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부식은 이때 사행에서 북송의 멸망을 목도하고 귀국하여 인종에게 중원의 사정을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었으며, 고려는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전개되는 금과 남송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부식의 문학적 정치적 존재감은 북송사행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그의 대중국 외교 활동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김부식은 격변하는 중원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중국 외교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면서 후대에 정치적 문화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Ⅲ. 『東人之文四六』 수록 김부식의 陪臣表·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부식의 2차 북송사행은 예종 11년(1116)에 북송에서

24) 『高麗史』 권15, 「仁宗世家」, “(仁宗四年), 九月乙丑, 遣樞密院副使金富軾·刑部侍郎李周衍如宋, 賀登極.”

25) 『高麗史』 권15, 「仁宗世家」, “(仁宗五年), 五月辛丑, 金富軾等至宋明州, 會金兵入汴, 道梗不得入, 癸卯乃還.”

보내온 大晟樂에 대한 사례를 목적으로 파견되는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했다. 고려사절단은 북송사행 도중 각종 활동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서장관은 사절단을 대표해서 表文을 지어 북송 조정에 올려야 한다. 이 사행에 42세의 김부식이 서장관으로 선발된 것은 그가 1차 북송사행을 통해 북송의 사정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절차에 필요한 문서 작성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때 사행에서 김부식이 작성한 「入宋謝差接伴表」를 비롯한 15편의 陪臣表狀이 『東人之文四六』 권9에 수록되어 현존하고 있다. 또한 사절단을 인도하는 引伴使에 보낸 「入宋使臣上引伴使狀」을 비롯하여 수도 汴京(현 河南省 開封市)까지 상경 및 귀국시에 경유하는 각 州·府에 보낸 狀啓 17편도 『東人之文四六』 권13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 기록들을 통해 당시 김부식 일행의 사행 경로 및 변경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²⁶⁾

『高麗史』 기록에 의하면 김부식 일행의 사절단은 예종 11년(1116) 7월 18일에 예종에게 하직하고 고려의 수도 開京을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경의 서쪽 30리에 위치한 禮成江변에 이르러 준비된 북송 상인의 대양선을 타고 고려를 출발하여 북송의 동남쪽에 위치한 明州(현 浙江省寧波市)로 향하게 된다. 명주는 문종 25년(1071)에 국교가 재개되면서 처음 파견한 民官侍郎 金悌 일행의 사절단이 다음해(1072) 귀국할 때 「南路」를 통해 귀국하면서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²⁷⁾ 그 후로 명주는 고려사절단이 북송을 드나들 때 줄곧 이용하던 북송의 해관에 해당하는 항구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북송에 사행한 인종 4년(1126)의 김부식 일행의 사절단까지 이어진다. 한편 이때 양국을 왕래하던 북송의 상선들은 주로 계절풍을 이용하여 바다를 건넜으므로 날씨 및 바람 등의 영향으로 출발 및 항해가 상당히 지연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고려를 출발해서부터 한 달 정도 걸려 명주에 도착한다. 김부식 일행의 사절단은 같은 해 9월 5일에 明州에 도착하여 북송 조정에 다음과 같이 「入宋謝差接伴表」를 올렸다.

26) 이하 김부식 일행의 汴京에서의 활동 및 그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豐島悠果, 「一一一六年入宋 高麗使節の體驗-外交・文化交流の現場」, 『朝鮮學報』 210, 2009가 참조된다.

27) 鄭堦謨, 「北宋後期 高麗使節團의 北宋使行 路程考-成尋의 『參天台伍臺山記』를 바탕으로」, 『대동 문화연구』 99, 2017 참조.

陪臣 아무개 등이 아옵니다. 지난 9월 5일에 明州 定海縣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더니 옆드려 聖慈께서 차정해서 내려 보내신 朝淸大夫 試少府監 淸河縣 開國男 食邑 300호 賜紫金魚袋 傅墨卿과, 武德大夫 兼 閣門宣贊舍人 長安縣 開國男 食邑 300호 宋良哲이 신 등의 接伴으로 와 있었습니다. 먼 곳의 사신이 조공하여 와서 천자의 위엄을 지척에서 우러르는데, 가까이 있는 신하가 수고롭게 맞아 주어 왕의 절개의 빛을 굽힙니다. 공손히 빛나는 은혜를 대함에 떨림을 이길 수 없어 신 아무개 등은 진실로 황공하고 진실로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28)

김부식 일행이 7월 18일에 고려조정에서 하직하고 대략 한 달 보름 만인 9월 5일에 明州의 관할 지역인 定海縣(현 浙江省舟山市)에 도착했으므로 비교적 순조로운 항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입송한 고려사절단의 접대를 위해 북송 조정에서 명주지역에 파견한 接伴使는 傅墨卿·宋良哲이었다. 한편 북송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장관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북송 접반사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필답이나 각종 문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상경할 때 경유하는 각 州·府의 지방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북송 조정에도 문서를 올려야 한다. 이에 김부식은 먼저 정사를 대신해서 접반사를 파견해 준 데 대해 북송 조정에 감사의 표문을 올린 것이다.

이후 고려사절단은 접반사와 함께 수도 汴京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북송 조정은 고려사절단원과 이들이 가지고 간 공물 및 각종 물품의 운송 등을 위해 별도로 引伴使를 파견하고 있다. 이때 김부식이 인반사에게 보낸 「入宋使臣上引伴使狀」이 전하고 있다.²⁹⁾ 고려사절단은 명주에서부터 인반사의 인도를 받으며 운하를 왕래하는 배로 갈아타고 하천 및 운하를 이용하여 변경으로 향하게 된다. 명주에서 변경까지의 사행

28) 『東人之文四六』 권9, 「入宋謝差接伴表」, “陪臣某等言, 昨於九月五日, 到泊明州定海縣. 伏蒙聖慈差降朝淸大夫·試少府監·淸河縣開國男·食邑三百戶·賜紫金魚袋 傅墨卿, 武德大夫·兼閣門宣贊舍人·長安縣開國男·食邑三百戶 宋良哲, 爲臣等接伴者. 遠介來朝, 仰天威之咫尺. 近臣逆勞, 屈星節之光華. 祇對恩輝, 不勝震越, 臣某等誠惶誠懼, 頓首頓首. ……”; 『東文選』 권34, 「表箋·入宋謝差接伴表」.

29) 『東人之文四六』 권13, 「入宋使臣上引伴使狀」, “右伏以寡君纂服, 職是守封, 上國馳誠, 禮當稱嗣, 嗟滄溟之阻闊, 加邊鄙之繹騷, 未抗表章, 已經年所. 茲膺使指, 底貢宸庭, 揭節戒塗, 已涉風波之險, 艤舟向岸, 佇瞻天日之光. 竊承逆勞之勤, 知有攀依之幸, 其爲竦企, 曷盡敷宣.”

로 곧 ‘南路’는 총 2680리로,³⁰⁾ 경유하는 각 州·府에서의 접대 등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달 남짓의 여정이다. 간혹 고려사절단이 상경하면서 각 지역을 유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한 두 달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그런데 김부식의 「謝郊迎表」에 의하면 고려사절단은 ‘今月七日’ 곧 10월 7일에 이미 변경의 근교[郊亭]에 도착하여 同館伴 范訥의 영접을 받고 있다.³¹⁾ 따라서 김부식 일행은 명주에서부터 상경하면서 통과하는 각 州·府에서의 접대의례 등을 대부분 생략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거의 한 달 만에 변경 교외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절단이 이처럼 서둘러서 변경으로 향한 것은 아마도 휘종의 생일인 10월 10일의 天寧節 연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식의 「謝天寧節垂拱殿赴御宴表」에 의하면, 고려사절단은 10월 10일에 垂拱殿에서 열린 황제의 생일 天寧節 잔치에 참여가 허락되어 북송 대신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휘종의 축수를 기원했으며, 이어서 궁궐에서 베풀어진 연회에도 참석했다.³²⁾ 그리고 사절단은 10월 23일에 崇政殿의 조회에 참석하여 조공의식을 행하고, 이어서 睿謨殿에서 베풀어진 궁중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부식의 「謝睿謨殿侍宴表」를 통해서 알 수 있다.³³⁾

한편 고려사절단이 변경에 체제하는 동안은 同文館에 머물게 되고, 변경에서의 사절단의 제반 활동은 館伴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데 이때의 관반은 휘종의 총신 한림학사 王黼이었다. 김부식의 「謝宣示御製詩仍令和進表」에 의하면 11월 2일에 관반 왕보가 휘종의 뜻을 전했는데, 10월 23일에 睿謀殿의 연회에서 휘종이 지었던 시를 보여주면서 고려사절단에게 이에 대한 和韻시를 지어 올리도록 했다.³⁴⁾ 이에 정사 이자량이 여기에 화운한 시를 지어 올리자 휘종이 보고 훌륭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³⁵⁾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30) 王存 等撰, 『元豐九域志』 권5, 「兩浙路」, 中華書局, 1984, 213면.

31) “陪臣某言, 今月七日, 伏蒙聖慈以臣初屆郊亭. 差降中亮大夫·貴州防禦使·充樞密院使·承旨知客省事同館伴范訥. 押賜御宴, 兼賜帶來三節人酒食者.”

32) “陪臣某等言. 今月十日天寧節, 伏蒙聖慈許令臣等詣垂拱殿, 隨班上壽, 仍賜參赴御宴者. ……”

33) “陪臣某等言, 今月二十三日, 入朝崇政殿次, 伏蒙聖恩, 參赴睿謨殿御宴者. ……”

34) “陪臣某等言, 今月二日, 館伴所傳下勅旨, 伏蒙聖慈宣示睿謨殿御製詩一首, 仍令臣等和進者. ……”

35) 『高麗史節要』 권8, “(睿宗 十二年, 五月), 李資諒還自宋. 資諒至汴京, 帝御睿謀殿, 盡召一行, 賜宴, 仍製詩示之, 命和進. 資諒即應製. 帝大加稱賞. ……”

이자량의 화운시를 게재하고 있어 주목된다.³⁶⁾ 그리고 사절단은 11월 10일에 휘종이 하사한 법복을 입고 太廟 및 南郊祀禮 곧 禋祀(冬至의 南郊祀)에 참가하고 나서 「謝法服參從三大禮表」를 올렸다.³⁷⁾ 禋祀는 3년에 한 번 동지에 열리는 제사로 대단히 성대했던 것 같다.

고려사절단의 禋祀 참여는 북송 휘종의 특별한 관심과 대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휘종은 예종 6년(1111)에 파견한 金緣·林有文 일행의 사절단이 다음해(1112) 귀국할 때 그 다음 연도(1113)가 3년마다 열리는 禋祀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춰 필히 사절단을 파견해 참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예종은 그해(1113) 6월부터 사절단 파견을 준비시켰지만, 殿中監朴景綽이 王太后 상중³⁸⁾임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자 어쩔 수 없이 사절단 파견 계획을 중지했다.³⁹⁾ 그래서 이해는 西頭供奉官 安稷崇을 파견하여 明州에 牒을 보내 母喪으로 금년에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다.⁴⁰⁾

한편 禋祀를 마치고 4일이 지난 11월 14일에는 휘종이 禋祀에 참가한 노고로 사절단의 정·부사에게 의복 한 벌 및 金二十兩, 銀一百兩, 絹一百匹을 하사하고, 上·中節에게도 각각 銀一十兩, 絹二十匹을 하사했으므로 김부식은 이에 대한 감사의 글 「謝冬祀大禮別賜表」를 올렸다.⁴¹⁾ 그리고 11월 26일에 사절단은 大明殿에 나아가 휘종의 부친 神宗의 영전에 참례했으며, 이에 김부식은 「謝許謁大明殿御容表」를

36) 『補閑集』 권上, “後三年癸巳(1116), 使李資諒李永等往朝, 帝御睿謀殿賜宴, 製詩示之, 仍命和進. 資諒廣韻曰, ‘鹿鳴嘉宴會賢良, 仙樂洋洋出洞房. 天上賜花頭上艷, 盤中宣橘袖中香. 黃河再報千年瑞, 綠醕輕浮萬壽觴. 今日陪臣參盛際, 願歌天保永無忘.’ 此詩語涉淺易, 而帝大加稱賞, 以其即事詳當也. 明日流傳諸鋪店, 書之爲簇掛諸壁.”

37) “陪臣某等言. 日者伏蒙聖慈賜以法服, 參從景靈宮, 大廟, 及南郊祀禮者. 拜命殊尤, 寵假服章之盛, 綴行密邇, 親瞻禋禮之嚴, 退省僭踰, 伏深戰懼. ……”

38) 『高麗史』 권13, 「睿宗世家」, “(睿宗七年), 秋七月己巳, 王太后柳氏薨于信朴寺.”

39) 『高麗史節要』 권8, “(睿宗八年, 六月), 以朴景綽爲國子祭酒. 時, 王欲遣使中朝, 景綽爲殿中監, 上疏諫止之. 其言切至, 王不得已從之. 遂有是除, 物議惜之.”

40) 『高麗史節要』 권8, “(睿宗八年, 九月), 遣西頭供奉官安稷崇如宋. 禮賓省移牒明州曰, “去年六月, 進奉使金緣回論, ‘來歲又當禋祀, 申覆國王, 遣使入朝以觀大禮.’ 已令有司備辦. 忽母后薨逝, 未遑遣使以達情禮.””

41) “陪臣某等言. 今月十四日, 中使某官某至, 奉傳勅旨, 伏蒙聖慈, 賜臣等各衣著一襲, 金二十兩, 銀一百兩, 絹一百匹, 兼賜上中節, 各銀一十兩, 絹二十匹者. 膚使厚辭, 俯加褒寵, 積金腆幣, 尤極匪頒, 祇荷靡勝, 震驚自失.”

올려 감사를 표했다.⁴²⁾

김부식 일행의 사절단은 북송의 변경에 도착한지 100여일이 지난 다음해(1117) 1월 중순경에 귀국할 날짜를 고하는 「乞辭表」를 올려, 1월 하순에 하직하고 출발하여 3월에 명주에 도착하고, 4월에 바다를 건너 귀국할 계획임을 밝혔다.⁴³⁾ 그러자 휘종은 고려사절단이 2월 하순에 하직하고 3월 초에 출발하도록 통보해왔으며, 이에 김부식은 휘종의 권유와 관대함에 감사하는 글 「謝御筆指揮朝辭日表」를 올렸다.⁴⁴⁾ 이는 2월 말에 성대하게 열리는 春宴에 고려사절단을 참가시켜 위업을 과시하면서 송별회를 베푸는 한편 당시 북송 태학에서 1년 넘게 유학하고 있던 權適 등 4명의 고려유학생들의 시험과 합격자 발표, 그리고 이들을 동반하고 귀국하는 문제⁴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휘종의 귀국 연기 권유에 따라 고려사절단은 예정보다 한 달 이상을 더 변경에 체제하게 되면서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가하게 된다. 사절단은 북송의 최고 교육기관인 太學과 辟雍을 참관하여 경전 강독을 청강하고, 더불어 大晟雅樂 연주를 관람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김부식은 이에 대한 감사의 글 「謝二學聽講兼觀大晟樂表」를,⁴⁶⁾ 2월 11일에는 宣和殿에 소장하고 있던 각종 그림을 관람하고 감사하는 글 「謝宣示太平睿覽圖表」를 올리고 있다.⁴⁷⁾ 그리고 2월 29일에는 集英殿에서 열린 春宴에 모든 고려사절단원이 참가하고 「謝赴集英殿春宴表」를 올리고,⁴⁸⁾ 귀국하는 정·부사 및 上·中節원들에게 내려주는 선물을 받고 「謝回儀表」를 올리고 있다.⁴⁹⁾ 또한

42) “陪臣某言. 十一月二十六日, 西景靈宮隨駕次, 伏蒙聖慈, 許令臣等, 進謁大明殿御容者. 扈從勝游, 目眩雲龍之盛, 仰瞻館御, 心驚天日之清, 揆寵踰涯, 捫襟積懼. ……”

43) “陪臣某等言, …… 伏念臣等, 承乏使人, 來脩聘禮, 離鄉國已踰六朔, 在京館將浹十旬. …… 賜以俞言, 許令臣等以今正月下旬離館, 三月到明州, 四月過洋歸國.”

44) “陪臣某等言, 今月二十一日, 中使某至, 奉傳勅旨, 伏蒙聖慈以臣等陳乞辭退, 特降御筆指揮, 許令二月下旬朝辭, 三月初進發者. ……”

45) 『高麗史』 권14, 「睿宗世家」, “(睿宗十二年, 五月)丁巳, 李資諒, 還自宋, 進士權適·趙奭·金端等, 偕資諒還. 帝初親策試適等于集英殿, 賜適等四人上舍及第, 特授適華貴.”

46) “陪臣等言, 昨奉勅旨, 伏蒙聖恩詣辟雍大學, 謁大成殿, 仍聽講經義, 兼觀大晟雅樂者. ……”

47) “陪臣某等言, 今月十一日, 伏蒙聖慈宣示宣和殿, 太平睿覽圖二册, 及成平曲宴圖, 仙山金闕圖, 蓬萊瑞靄圖, 姑射圖, 奇峯散綺圖, 村民慶歲圖, 夫子杏壇圖, 春郊耕牧圖, 玉清和陽宮慶雲圖, 筠莊縱鶴圖, 秋成欣樂圖, 白玉樓圖, 唐十八學士圖, 夏景豐稔圖, 太上度開圖各一卷者. ……”

48) “陪臣某等言, 二月二十九日, 伏蒙聖慈特令臣等, 及三節人參赴集英殿春宴者. ……”

49) 「謝回儀表(使行副使又賜絹四千四百二十疋)」. “陪臣某言, 今月某日, 伏蒙聖慈以臣進奉土宜, 回賜

고려사절단은 萬壽節에 황제에게 말 한 필을 받치고 황제의 萬壽 기도를 올렸는데, 이에 대한 휘종의 위로에 감사하는 「謝獎諭表」도 올렸다.⁵⁰⁾

李資諒·李永 사절단은 변경에서 5개월 동안 체재하다가 3월초에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할 때는 북송 태학에서 유학생활동을 마친 權適 등 4명의 유학생도 동반하게 된다. 사절단 일행은 변경을 출발하여 다시 운하를 이용해 처음 입송했던 명주지역으로 돌아오며, 여기에서 다시 입송할 때 타고 왔던 송상의 배로 갈아타고 고려로 향한다. 이들이 개경에 도착하여 북명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전해 7월 18일에 하직하고 개경을 출발했으므로 이들의 북송사행은 대략 10개월 반이 소요되었으며, 북송에서는 대략 8개월 남짓, 변경에서는 5개월 정도 체재했다. 김부식 일행의 사절단은 예년의 사행에 비해 변경에서의 체재 기간이 다소 길어졌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휘종의 생신인 10월 10일의 天寧節 연회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찍 상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경 도중 통과하는 각 州·府에서의 접대의례 또한 대부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東人之文四六』권13에 수록된 김부식이 각 州·府의 知州나 通判에게 보낸 狀啓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인지문사록』권13에는 김부식이 작성한 狀啓 17편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는데,⁵¹⁾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사절단을 인솔하거나 사절단이 통과하는 각 지역 州·府의 知州 및 通判에게 도착을 알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내는 아주 짧은 편지글이다. 이들 狀啓의 제목을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된 순서대로 배열하면 「入宋使臣上引伴使狀」, 「杭州」, 「廻次南京」, 「宿州」, 「泗州」, 「楚州」, 「高郵軍」, 「揚州」, 「潤州」, 「常州」, 「蘇州」, 「秀州」, 「越州」, 「明州」, 「謝館伴廻儀狀」, 「謝潤州宴」, 「謝杭州回儀狀」이다. 이중 「入宋使臣上引伴使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명주지역에 도착했을 때 고려사절단을 인솔하여 상경하기 위해 온 引伴使에게 감사를 표하는 글이다. 그리고 처음 놓인 「杭州」는 사절단이 杭州(현 浙江省 杭州市)를 통과할 때 이 지역의 知州나 通判에게 보낸 글로 보인다.⁵²⁾ 이때 고려사절단은 이들 지방관에게도 준비해 간 선물을 증여하게 된다. 당시 북송 조정에서는 고려사절단으로부터 받은

絹五千七百三十四, 兼給上·中節員有差者. ……”

50) “陪臣某言, 今月十日, 中使某至, 奉傳勅旨, 伏蒙聖慈以臣馬一匹納萬壽觀, 祝聖壽萬年事, 特降詔書獎諭者. ……”

51) 『東文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2) “越海來王, 遡河詣闕, 屬經大府, 煩爲導於候人, 汙近高閭, 願聞名於擯者. 誠之所切, 言不能宣.”

선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준비하여 사절단이 귀국하는 길에 회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지막에 수록된 「謝杭州回儀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⁵³⁾ 한편 「謝館伴廻儀狀」은 변경을 떠나면서 귀국 준비를 해준 館伴에게 감사하는 글,⁵⁴⁾ 「謝潤州宴」은潤州(현 江蘇省 鎮江市)에서 연회를 베풀어준 데 대해 감사하는 글이다.⁵⁵⁾

그런데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된 이들 제목에 의하면 고려사절단이 상경할 때는杭州에서만 지방관 접대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상경하는 운하길 ‘南路’에서 처음에 도착하는 지역 「杭州」를 제외하면, 「廻次南京」⁵⁶⁾ 이하부터는 모두 귀국할 때 이용하나는 운하길에 위치한 州·府가 순서대로 배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절단은 명주에서 변경으로 상경했을 때와 반대로 南京(應天府, 현 河南省 尙丘市)→宿州(현 江蘇省 宿州市)→泗州(현 江蘇省 盱眙縣)→楚州(현 江蘇省 淮安市)→高郵軍(현 江蘇省 揚州市)→揚州(현 江蘇省 揚州市)→潤州(현 江蘇省 鎮江市)→常州(현 江蘇省 常州市)→蘇州(현 江蘇省 蘇州市)→秀州(현 浙江省 嘉興市)→杭州→越州(현 浙江省 紹興市)를 거쳐 명주에 도착하는데 김부식의 狀啓 제목 또한 이러한 노정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면 김부식 일행이 귀국할 때는 상경 때와 달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南路’에 위치한 각 州·府에 차례로 머물면서 지방관의 접대의례에 응하고, 「謝潤州宴」처럼 사절단을 위해 베푼 연회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무역이나 관광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김부식이 2차 북송사행 때 서장관으로 참여한 李資諒·李永 사절단은 예종11년(1116) 7월 18일에 고려 조정에 하직하고 출발했으며, 9월 5일에 북송의 명주에 도착하여 입송 보고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상경하여 10월 초에 변경에 도착하여 대략 5개월 동안을 변경에서 체재하다가 3월 초에 귀국길에 오르고, 5월 초경에 명주를 출발하여 5월 30일에 귀국하여 복명했다. 이때 김부식은 사절단을 대표해서 북송 조정에 각종 表를 지어 올렸으며, 또한 각 州·府의 지방관이나 사절단을 접대하고 안내하는 관리에게도 많은 狀을 지어 보냈는데, 이때 지은 김부식의 表·狀 30여

53) “前謁公門，聊將末幣，雜佩以報，茲辱於多儀，稊載而歸，不勝於厚賄。其爲感惡，曷盡言書。”

54) “北宸曄穆，甫遂來朝，東道仁賢，猥煩詔相，敢茲發幣，姑用達誠，辱紆稠疊之辭，兼貺便蕃之品。”

55) “奉琛來聘已事，言旋出入名邦，甫展兮庭之禮，從容密席，又陪折俎之歡，徒激丹悰，難宣鈍筆。”

56) “乘桴浮海，已入覲於天庭，衣錦還鄉，再經由於日甸。佇期望履，預極傾心。”

편이 현재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종11년(1116)의 북송사행에서 김부식이 지은 30여 편의 表·狀은 당시 고려사절단의 사행 노정 및 북송에서 사절단의 구체적으로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IV. 金富軾『奉使語錄』一卷

고려는 북송이 들어서는 960년부터 멸망하는 1126년까지 167년 동안에 총 47회의 공식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전기 70여년은 북방에 위치한 거란의 군사적 위협으로 여송의 사절 왕래는 주로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데 반해 북송의 요구로 국교가 재개되는 문종 25년(1071) 이후의 56년 동안은 주로 경제적 문화적 목적에서 고려가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총 47회의 공식사절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행에 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송사행에 관련된 고려 측의 기록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보이는데, 이들 역사문헌자료에는 주로 사절단이 출발하고 귀국한 시간과, 사절단 대표의 관직과 이름, 그리고 가끔 북송에서 받아들인 황제의 詔勅 등을 수록하고 있을 뿐이며, 때로는 이런 기본적인 기록조차도 누락되었거나 기록에 오류도 존재한다. 또한 이 시기 사행에 참여한 몇몇 문인들의 개인 문집이 편찬되었다고 하지만 義天의 『大覺國師文集』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존하는 묘지명 중에는 가끔 이 시기 북송사행 관련 기록이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宋史·高麗傳』을 비롯한 북송측 자료는 고려의 조공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만 기록상의 오류 또한 적지 않으며, 특히 휘종·흠종 연간의 고려사절단에 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여 이 시기 양국 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헌적 한계 속에서 예종 11년(1116)의 북송사행에서 서장관 김부식이 작성하여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는 30여 편의 表·狀 자료는 북송사행 및 이 시기 여·송 관계를 연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1차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宋史·藝文志』에는 ‘金富軾『奉使語錄』一卷’이 저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奉使語錄』은 제목으로 보아 김부식이 북송사행을 마치고 작성한 사행보고서로 추정되지만 이른 시기에 실전되어 그 구체적인 실상은 알 수 없다.⁵⁷⁾ 다음은 김부식의 『봉사어록』이 『송사·예문지』에 저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金富軾『奉使語錄』一卷은 『宋史·藝文志』(권203) 史部的 ‘傳記類’에 저록되었다. 『宋史·藝文志』‘傳記類’에는 『奉使語錄』에 앞서 고려시대 서적으로서 “『三國史記』五十卷(並不知作者), 高得相『海東三國通曆』十二卷”이 저록되었다. 이로써 『송사·예문지』를 편찬할 때 이미 김부식의 『三國史記』五十卷과 고득상의 『海東三國通曆』十二卷이 중원에 전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남송 王應麟(1223~1296)의 『玉海』「地理·異域圖書」에 의하면, 淳熙元年(1174)에 明州의 進士 沈忞이 김부식의 『三國史記』五十卷을 남송 조정에 받치고 포상을 받았다고 한다.⁵⁸⁾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함께 고득상의 『해동삼국통력』 또한 『玉海』에 저록되고 있다.⁵⁹⁾ 고득상의 『해동삼국통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海東高僧傳』권1의 「阿道」, 『三國遺事』卷3의 「阿道基羅」에서 이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전기에 편찬된 삼국시기의 역사서로 보인다.⁶⁰⁾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고득상의 『해동삼국통력』이 남송에 전해져 『玉海』의 「地理·異域圖書」에 저록되고 있는 것처럼 김부식의 ‘『奉使語錄』一卷’ 또한 일찍이 중원에 전해져 『송사·예문지』에 저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봉사어록』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을까?

‘奉使’는 사신으로 파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語錄’은 어떤 사람을 말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합하면 사신으로 파견되어 사행에 관련 기록을 남긴 것으로, 사행보고서나 사행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宋史·藝文志』‘傳記類’에는 김부식의 『奉使語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행록이 저록되어 주목된다.

57) (清)于敏中 等纂修, 『日下舊聞考』 권37, 北京古籍出版社, 1983, 596면.

58) 『玉海』 권16, 「地理·異域圖書」, “『三國史記』: 淳熙元年(1174)五月二十九日, 明州進士沈忞上『海東三國史記』五十卷, 賜銀幣百, 付祕閣.”

59) “『三國史記』: 書目五十卷, 高麗金富軾撰, 首載新羅次高句麗次百濟, 有紀表. 『海東三國通曆』十二卷, 高麗高得相撰, 係以中朝歷代正朔.”

60) 金相鉉, 「고려 후기의 역사 인식」,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87면.

富弼『奉使語錄』二卷,
又『奉使別錄』一卷, ……
劉敞『使北語錄』一卷, ……
吳棫『鷄林記』二十卷,
王雲『鷄林志』三十卷

여기서 북송의 富弼(1004~1083)과 劉敞의 ‘語錄’은 거란의 요나라에 사행하고 작성한 사행보고서이며, 吳棫과 王雲의 기록은 고려에 사행하고 남긴 사행록으로 보이는데 모두 실전되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富弼과 劉敞의 거란 사행록에는 ‘奉使’(使) 및 ‘語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분량도 一·二권에 불과한 반면에 후대의 吳棫과 王雲의 고려 사행록은 二·三十권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富弼의 『奉使語錄』二卷은 제목이나 분량 면에서 김부식의 『봉사어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 한편 중국학자 傅樂煥의 연구에 의하면 북송시기 사행록으로 ‘語錄’이라는 명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⁶¹⁾ 또한 김부식보다 한 세대 앞선 북송의 蘇軾(1036~1101)과 蘇轍(1039~1112) 형제의 글에서도 각각 ‘語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⁶²⁾ 이때는 고려사절단 접대를 맡았던 관반 陳軒이 남긴 기록 즉 ‘館伴語錄’을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북송 무필의 『봉사어록』 등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김부식의 『봉사어록』은 일종의 사행록으로, 이는 김부식이 북송사행 도중 또는 사행을 마치고 작성하여 고려 조정에 올린 사행보고서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부식의 『봉사어록』은 어느 때 북송사행에서 작성한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부식은 수행원, 서장관, 정사의 직함으로 3차에 걸쳐 북송에 사행했다. 1차 북송사행은 대개 中·下節의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 사절단을 대표하여 사행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2차 북송사행

61) 傅樂煥, 「宋人出使遼金語錄研究」, 『遼史叢考』, 中華書局, 1984.

62)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권35, 「論高麗買書利害劄子三首」, 中華書局, 1986, 994~1001면, “據陳軒所奏語錄, 卽是高麗知此條. ……又據軒等語錄云: 高麗使言海商擅往契丹, 本國王捉送上國, 乞更嚴賜約束, 恐不穩便. 而軒乃答云: “風訊不順飄過”; 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권42, 「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首, 二, 論北朝政事大略」, 上海古籍出版社, 2009, 939면, “臣等近奉敕差充北朝皇帝生辰國信使, 尋已具語錄進呈訖. 然於北朝所見事體, 亦有語錄不能盡者, 恐朝廷不可不知, 謹具三事條列如左.”

은 예종 11년(1116)에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하고 많은 表·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부식의 3차 북송사행은 인종 4년(1126)에 정사로 참여했는데, 이때 汴京이 금에 함락되면서 김부식 일행은 명주에 발이 묶여 5개월을 머무르다가 귀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북송 조정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語錄』의 내용이 부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金富軾『奉使語錄』一卷’은 예종 11년(1116)에 서장관으로 참여한 2차 북송사행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봉사어록』1권은 주로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된 김부식의 表·狀 30여 편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崔瀼(1287~1340)가 『동인지문사록』을 편찬하면서 『봉사어록』에 수록된 表·狀을 그대로 전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崔瀼은 일찍부터 고려의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東人之文四六』을 편찬하면서 공식 외교문서인 事大表狀을 비롯하여 중국 사행에서 서장관이 작성한 陪臣表狀 등 외교 및 사행과 관련된 많은 문헌을 수집하여 수록하고 있다.⁶³⁾ 한편 忠肅王 復3년(1334)에 원나라 順帝의 생일인 天壽聖節(4월 17일)을 賀禮하기 위해 파견하는 直密 蔡某(蔡河中?)의 서장관으로 발탁되어 원나라로 떠나는 鄭誦(1309-1345)를 전별하면서 쓴 「送鄭仲浮書狀官序」에서는 書狀官의 역할 및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삼한은 예로부터 중국과 통하여 일찍이 문물이 동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歲時마다 조공해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우대하는 것이 주변의 다른 민족보다 두드러졌으니, 이는 대개 먼 지방 사람을 오게 하자는 것이다. 매양 사신을 보낼 적에는 반드시 수행원을 신중히 뽑았는데 그 동행이 혹은 3~5백 명에 달하였으며 적어도 백 명 이상은 되었다. 사신이 중국 땅에 이르면 그 쪽에서는 朝官을 보내어 국경에서 영접하고 경유하는 州·府에서는 천자의 명으로 예물을 전달해 준다. 郊亭에 당도하면 또 맞아서 위로하며, 숙소에 도착하면 노고를 물었다. 날로 지급하는 풍부한 선물을 제외하고도 참배부터 하직하기까지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마련하여 손님의 예로 대접하며 御札을 내리어 특별히 茶香·酒果·衣服·器玩·鞍馬 등을 하사하여 풍부한 예물

(63) 「東人之文四六序」, “竊審, 國祖已受冊中朝, 堯世相承, 莫不畏天事大, 盡忠遜之禮, 是其章表得體也.”

이 끊임없는데, 종사관이 모두 表나 狀으로 陪臣을 대신하여 감사를 올린다. 또한 사사로이 재상들을 보게 될 때도 또한 왕복하는 啓와 劄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書記의 소임이 通才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앞 시대에 재상을 지냈던 朴寅亮·金富軾과 같은 이들도 일찍이 모두 이 소임을 맡은 바가 있는데, 중국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⁶⁴⁾

최해는 먼저 중국의 고려 사절단에 대한 특별한 대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어 구체적으로 사절단의 입국 절차에 따른 중국측의 접대 및 이에 수반되는 서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서장관은 사절단을 대표하여 사행에 수반되는 각종 表狀을 수시로 작성해야하므로 문학적 通才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인물로 朴寅亮과 金富軾을 들고 있다. 최해의 이러한 평가는 그가 『東人之文四六』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박인량과 김부식이 서장관으로 참여한 북송사행에서 남긴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들의 역할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다.

실제로 박인량은 文宗 25년(1071)에 40여 년간 단절되었던 북송과의 국교가 재개 되어 처음 파견된 民官侍郎 金梯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북송사행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사행에서 박인량은 자신의 시문제작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중국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북송 조정의 대고려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⁶⁵⁾ 또한 이때 고려 사행원들은 사행 도중 많은 시를 수창했는데 이렇게 지은 창화시 70여 편을 모아 『西上雜詠』을 편찬하기도 했다.⁶⁶⁾ 한편 김부식은 睿宗 11년(1116)에 파견된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했으며, 이때 지은 30여 편의 表·狀이 『동인

64) 『拙藁千百』 권2, “三韓古與中國通, 文軌未嘗不同. 然其朝聘不以歲時, 故寵待有出於常夷, 蓋所以來遠人也. 每遣人使, 必自慎簡官屬, 其帶行或至三五百人, 少亦不下於一百. 使始至中國, 遣朝官接之境上, 所經州府, 輒以天子之命致禮餼. 至郊亭又迎勞, 到館撫問. 除日支豐腆, 自參至辭, 錫饌內殿, 設食禮賓, 御札特賜茶香·酒果·衣襲·器玩·鞍馬禮物, 便蕃不絕. 而隨事皆以表若狀, 稱陪臣伸謝. 而其私覲宰執, 又多啓劄往復. 故書記之任, 非通才號難能. 中古國相若朴寅亮·金富軾輩, 皆嘗經此任, 而爲中國所稱道者.”

65) 鄭堦謨, 「北宋使行을 통해서 본 朴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韓國漢文學研究』 46, 한국한문학회, 2010.

66) 晁公武, 『郡齋讀書志』 卷20, 「高麗詩三卷」, “……使人金梯(悌)·朴寅亮·裴(□)·李絳孫·盧柳·金化珍等 塗中酬唱七十餘篇, 自編之爲『西上雜詠』, 絳孫爲之序.”

지문사록』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따라서 최해의 박인량과 김부식의 서장관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북송사행 관련 기초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인지문사록』에 박인량의 사행 관련 자료는 한편도 수록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김부식의 사행관련 자료는 어떻게 30여 편이나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최해가 『동인지문사록』을 편찬할 때 김부식의 『奉使語錄』一卷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한편 후대 문헌에 따르면 김부식의 문집 『銀臺文集』 20권이 전해졌다고 한다.⁶⁷⁾ 그렇다면 최해가 편찬한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된 북송사행 관련 30여 편의 表·狀은 김부식의 『은대문집』 20권에도 수록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해는 『은대문집』에서 김부식의 북송사행 관련 表·狀을 채록하여 『동인지문사록』에 수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런데 『동인지문사록』 권12에 수록되어 있는 김부식의 「上疏不報辭職表」와 「三辭表」뒤에는 작은 글씨로 「集無」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최해가 『동인지문사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은대문집』을 참고하고 있지만, 현재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된 모든 자료가 반드시 『은대문집』에서 채록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인지문사록』 권8의 陪臣表狀에는 김부식의 15편 작품 다음에 김부식과 같이 예종 11년(1116)의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북송사행에 동참했던 鄭知常·金端·林存의 작품 4편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鄭知常의 「謝使副及上節都轄已下十九員各賜單公服表」, 金端의 「謝釋奠陪位表」과 「謝衣對銀絹表」, 그리고 林存의 「謝許習大晟樂表」가 수록되었다.⁶⁸⁾ 이처럼 예종 11년(1116)의 사행 때 제작된 작품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부식의 『奉使語錄』 1권에는 鄭知常·金端·林存의 작품 4편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인지문사록』 권8의 陪臣表狀에는 김부식 등의 작품에 이어 고려중기에 활동한 金克己의 작품 「入金謝差接伴表」 이하 15篇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金克己의 表狀은 모두

67) 趙云佐, 『三韓詩龜鑑』, “侍中金富軾: 字立之, 號雷川, 諡文烈, 封樂浪侯. 著『銀臺文集』”; 金杰, 『海東文獻總錄』, “金富軾文集二十卷”

68) 이중 金端은 당시 북송의 태학에 1년 이상 유학하고 있었는데, 사절단이 汴京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 맞춰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함께 귀국하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며, 鄭知常과 林存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으로 대북송 외교 경험을 위해서 이번 북송사행에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神宗 6년(1203)에 금나라에 파견되는 賀正使 李延壽의 서장관으로 금나라에 사행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그리고 『동인지문사록』 권13에는 김부식의 狀啓에 이어 김극기가 이때 사행에서 통과하는 각 주현의 지방관에게 보낸 「入金使臣回平州狀」을 비롯한 10편의 狀啓를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동인지문사록』에 수록된 김극기의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김극기 또한 서장관으로 금나라를 사행하고 사행록을 남긴 것으로 보이며, 최해는 『동인지문사록』을 편찬하면서 김극기의 사행록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李承休(1224~1300)가 元宗 14년(至元 10년, 1273)에 원나라의 皇后와 皇太子 책봉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賀進使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원나라 大都(현 北京市)에 사행하고 남긴 『賓王錄』을 최초의 사행록으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현재 『賓王錄』은 이승휴의 문집 『動安居士集』 권4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집 편찬 방식을 고려할 때 김부식의 『奉使語錄』 1권 또한 그의 『銀臺文集』 20권에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李承休가 元宗 14년(1273)에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원나라 大都(현 北京市)에 사행하고 남긴 『賓王錄』을 최초의 사행록으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賓王錄』 이전에 이미 김부식의 『奉使語錄』이 존재했으며, 또한 金克己도 神宗 6년(1203)에 서장관으로 금나라에 사행하고 사행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高麗史』 「金垵列傳」에 의하면 金垵(1211~1278) 또한 高宗 27년(1240)에 서장관으로 몽고에 사행하고 『北征錄』을 남겼다고 한다.⁶⁹⁾ 이처럼 이승휴의 『賓王錄』 이전에 이미 북송 및 금나라에 사행한 서장관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사행록이 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이들 작품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V. 맺음말

김부식 가계는 부친 김근을 비롯하여 김부식 3형제가 모두 북송사행을 통해 문명을

69) 『高麗史』 권106, 「金垵列傳」, “金垵, 字次山, 初名百鎰, 扶寧縣人. 自幼, 善屬詩文, 每夏課, 儕輩無居右者, 皆以狀元期之. 高宗朝, 擢第二人及第. …… 以權直翰林, 充書狀官如元, 有北征錄, 行於世.”

떨치게 된 이른바 대중국 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성장한 집안이었다. 김부의, 김부식, 김부일 모두 서장관으로 북송에 사행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김부식과 김부의의 경우는 서장관으로 북송에 사행한 뒤 10여년 후에 다시 정사 및 부사가 되어 사절단을 이끌고 북송에 사행하고 있다. 특히 김부식이 예종 11년(1116)에 고려가 ‘國信使’로 격상되면서 북송에 파견되는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그리고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인종 4년(1126)에 북송에 파견되는 마지막 사절단의 정사로 선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의 문학적 재주뿐만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부식은 隨行員, 書狀官, 正使의 직함으로 3차에 걸쳐 북송에 사행했다. 그중 예종 11년(1116)에 李資諒·李永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참여한 제2차 사행에서 지은 表·狀 30여 편이 『東人之文四六』에 수록되어 현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절단의 사행 노정 및 汴京에서의 활동 등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宋史·藝文志』에는 ‘金富軾『奉使語錄』一卷’이 저록되어 있으나 일찍이 실전되었다. 본고에서는 북송 부필의 『봉사어록』 등의 예를 통해서 김부식의 『봉사어록』이 일종의 사행록으로, 이는 김부식이 서장관으로 참여한 제2차 북송사행 때 작성한 사행보고서로 보았다. 그리고 崔瀧가 『동인지문사록』을 편찬하면서 『봉사어록』에 수록된 表·狀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김부식의 북송사행 관련 자료가 현존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부식의 『奉使語錄』은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행록이며, 『동인지문사록』에 재수록되어 전하는 이들 表·狀은 고려사절단의 노정과 북송에서의 제반 활동, 그리고 당시 여·송관계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참고문헌

- 金富軾 撰, 『三國史記』,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刊, 昭和61
- 金龍善 編, 『高麗墓誌銘集成』(第五版),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鄭麟趾 等 編, 『高麗史』,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90
- 崔滢 編, 『東人之文四六』, 『高麗名賢集』所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 崔滋 撰, 『補閑集』, 趙鐘業 編, 『修正增補韓國詩話叢編』所收, 太學社, 1996
-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中華書局, 1986
- 宋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中華書局, 1986
- 宋 王存等 撰, 『元豐九域志』 권5, 「兩浙路」, 中華書局, 1984
- 宋 晁公武 撰, 孫猛 校證, 『郡齋讀書志校證』,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宋 徐兢 撰, 『宣和奉使高麗圖經』, 亞細亞文化社, 1972
- 元 脫脫等 編, 『宋史』, 中華書局, 1977
- 清 徐松 編, 『宋會要輯稿』, 中華書局, 1987
- 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 1, 신서원, 2010
- 姜吉仲, 『高麗與宋金外交經貿關係史論』, 文津出版社有限公司, 2004
- 李鎮漢,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景仁文化社, 2011
- 白壽彝, 『中國交通史』, 商務印書館, 1993
-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 楊渭生 等編,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匯編』上·下冊, 北京: 學苑出版社, 1999
- 王霞, 『宋朝與高麗往來人員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8
- 全海宗, 『中韓關係史論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 金成奎, 「入宋高麗國使의 朝貢儀禮와 그 주변」, 『全北史學』 24, 2001
- _____, 「高麗前期의 麗宋關係」, 『國史館論叢』 92, 2000
- 金謂顯,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관동대학교, 1978
- 朴龍雲, 「高麗·宋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한국학보』 21(4), 일지사, 1995
- _____, 「高麗·宋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下), 『한국학보』 22(1), 일지사, 1996
- 朴漢男, 「14세기 최해의 『동인지문사육』 편찬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32, 1997
- 李錫炫, 「宋 高麗의 外交交渉과 認識·對應-北宋末 南宋初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9, 2005

- _____, 「北宋代使行旅程行路考-宋入境以後를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114, 동양사학회, 2011
- 全海宗, 「麗宋關係」, 『東洋學』 7,檀國大學, 1977
- 鄭起燾·金容完, 「麗宋關係研究-性格을 중심으로」, 『충남대학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1985
- 鄭堉謨, 「北宋使行을 통해서 본 朴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韓國漢文學研究』 46, 한국한문학 연구회, 2010
- _____, 「北宋後期 高麗使節團의 北宋使行 路程考-成尋의 『參天台伍臺山記』를 바탕으로」, 『대 동문화연구』 99, 2017
- _____, 「李子淵의 北宋使行考-『破閑集』 수록 甘露寺 시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6, 2019
- _____, 「고려 중기 복송 신유학 전래 再論-『宋史·楊時列傳』의 “(高麗)國主問龜山安在”記事 분석」, 『대동문화연구』 105, 2019
- 徐連達, 「10世紀中葉到11世紀初北宋與高麗王朝的友好關係」, 復旦大學『韓國研究論叢』 第1輯, 上海人民出版社, 1995
- 傅樂煥, 「宋人出使遼金‘語錄’研究」, 『遼史叢考』, 中華書局, 1984
- 黃寬重, 「南宋與高麗的關係」, 『南宋史研究集』,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5
- 奥村周司,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十一・二世紀における對中關係の一面」, 『史觀』 110, 1984
- 豊島悠果, 「一一一六年入宋高麗使節の体験-外交・文化交流の現場」, 『朝鮮學報』 210, 2009
- 丸龜金作,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 (一)・(二)」, 『朝鮮學報』 17・18, 1960・1961

Kim Bu~sik's diplomatic envoy to North Song and Bongsakorok

Jung, Sun-mo

As an entourage, recorder and ambassador, Kim Bu~sik once visited the Northern Song Dynasty for three times. In 1116, the second time that he visited the Song Dynasty together with Lee Ja~ryang and Lee Yung, he wrote more than 30 memorials and accounts, which were incorporated in *Donginjinmun sayuk* and had handed down. Through these records, we can know the route of the diplomatic corps and their activities in Byunkyung(Kaifeng City) in detail. In the meanwhile, there is a volume of Kim Bu~sik's Bongsakorok recorded in *yemunji of history of the Song dynasty*. But it had been lost for a long time. Based on thi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fact that *Bongsakorok* is Kim Bu~sik's dispatch report when he visited the Song Dynasty as a recorder during the second time. Moreover,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meaning of literature and history that Choi Hae collected all of the memorials and accounts in *Bongsakorok* intact in *Donginjinmun sayuk*.

Kim Bu~sik's *Bongsakorok* is the earliest state visit notes between Koryo and the Northern Song Dynasty in Korean literature. These memorials and accounts included in *Donginjinmun sayuk* has become important documents for understanding the path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diplomatic corps in the Song Dynast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yo and the Northern Song Dynasty at that time.

Key Words : Kim Bu~sik, state visit to the Northern Song, *Bongsakorok*, *Donginjinmun sayuk*, *Yemunji of History of the Song Dynasty*